

LOCAL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나주 ‘천연염색’, 프랑스 축제서 선보인다

목포, 착한가격업소 점검

신규 4곳 등 총 45곳 운영

목포시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 1년 미만 업소를 제외한 기존 26개소에 대해 가격·위생·청결 등 행정안전부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일제 점검하고, 이중 1개소를 제외한 25개소를 재지정했다.

또한, 지난 3월 신규 신청을 받아 점검표에 의한 현장실사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45개소로 운영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 밀접형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정 업소에 대해 지정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운영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광, 군민 대상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기 마감

영광군은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조기에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최근 5년 이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0세 이상(1965년생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민 1200여명이 참여해 한 달 만에 마감됐다.

한편 영광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대상 27~36주 이내 임신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예방접종(대상 18~26세 성인), 수막구균 성 수막염 예방접종(대상 36개월 이내 영아) 등 유·무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61-350-4818, 5562)로 문의하면 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군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시, 제12회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축제 참가

전통공예 등 유럽무대 소개…전통문화 세계화

나주시가 프랑스 현지에서 지역 고유의 색인 천연염색 문화를 소개한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6월 1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Le Printemps Coreen) 축제에 참가했다.

재단은 나주의 전통 염색 기술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 친환경 가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전통 공예의 진면목을 유럽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봄’은 매년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국문화 축제이다.

공연과 전시, 영화와 문학 등 다양한 장



에서 자연에서 얻은 색을 활용한 천연염색 원단과 다양한 의류 작품을 전시한다.

르를 아우르며 유럽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 문화행사 성격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재단은 축제에서 자연에서 얻은 색을 활용한 천연염색 원단과 다양한 의류 작품을 전시한다.

천연염색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한국 전통미의 정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친환경 공예로서 천연염색이 지닌 지속가능한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 발표자로 참여해 나주에서 재배되는 ‘쪽’ 식물 염료의 특징과 활용 방식, 환경적 장점,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천연염색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이번 축제 참가는 천연염색 분야가 유럽 국가에 공

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사례로 지역 전통문화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천연염색은 자연과 공존하며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색과 철학을 담고 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탄소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축제에 나주에서 재배되는 ‘쪽’ 식물의 특성과 활용 방식, 환경적 장점을 도모하고 양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구례 매천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 선정

내달부터 9월까지 21회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은 매천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들이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 가치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강연과 탐방을 통해 책, 사람, 현장을 연결하며 인문학을 더욱 친숙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매천도서관은 올해 길 위의 인문학 ‘걸어보니 그대, 구례’라는 주제로 지리산 둘레길 인문 영상 가이드를 총 9회 운영한다.

또한 지혜학교 ‘K-culture로 세상

을 걷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계의 예술과 역사에 관한 여행지 인문학 강의를 시니어 대상으로 총 12회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 45명을 모집하며,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매천도서관 방문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매천도서관이 11년째 운영하는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를 통해 인문학을 지역민에게 더 쉽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례책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전정제 기자 dong-eah@

‘한국관광 100선’ 즐기며 혜택 누려요

광양매화마을 등 전국 87개 관광지 스탬프 투어 이벤트

광양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5월 한 달 동안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세계인이 꼭 방문해야 할 ‘한국관광 100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다.

참여 대상지는 광양매화마을을 포함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국 87개소이며, 각 거점에는 여권형 스탬프북 50부와 날장 스탬프 용지 2500매가 비치된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광양매화마을 내 청매실농원 등에 비치된 ‘2025~2026 한

국관광 100선’ 여권 및 용지에 스탬프를 찍어 인증해야 한다. 총 87개소 중 21개소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수집하고, ‘한국관광 100선’ 공식 인스타그램(@visitkorea100)을 팔로우한 후 인증까지 마친 선착순 5000명에게는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이벤트 관련 사항은 광양관광 공식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매화마을은 세계인이 꼭 방문해야 할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대표 관광지이며,

봄이면 가장 먼저 찾고 싶은 명소로 손꼽힌다”며 “이번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계기로 더 많은 분이 빛과 별, 태동의 도시 광양을 찾아, 광양매화마을은 물론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원도심의 문화예술, 야경까지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매화마을은 대표성,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서면 및 현장평가, 최종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여수, 어·패류 종자 방류…수산자원 조성

돌돔·볼락·문치가자미·전복·해삼 등

여수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7품종의 종자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어류 3종(돌돔, 볼락, 문치가자미) 36만 마리, 전복 48만마리, 해삼 52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품종은 지역특성과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방류해역은 어업인의 의견수렴 및 인공어초 등 서식기반이 잘 조성돼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에 적합한 곳으로 선정했다.

또한 마을앞바다 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복을 마을어업권 내에 살포해 어촌계에서 자원을 관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 중 12개소에 전복 종자를 36만마리 이상 살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종자를 방류한 해역에서는 방류 종자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조업 감시 등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